

## ■ 자료소개

# 김명순의 <두 愛人><sup>1)</sup>

박명진

탄실(彈實) 김명순(金明淳)은 1900년 평북 평양군 용덕면에서 참사(參事) 김희경(金羲庚)의 소실 몸에서 출생하여 진명여학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17년 최남선이 주재하는 『靑春』에 이광수 추천으로 단편 <疑心の少女>가 현상 2등으로 입선함으로써 작가로 데뷔하였다. 이후 1919년 ‘창조’ 동인으로 가담하였고, 1924년 『폐허이후』에 시 <위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5년에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해 활동하다가 1939년에 독일한 뒤 1951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순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계모 밑에서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내다가 당시 동향인이며 평양의 부호 화백이었던 김유방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다닐 수 있었다. 그녀는 김유방에게 사랑을 바쳤으나 자유주의자였던 그는 김명순에게 구속받기를 거부했다. 김유방은 자비로 김명순을 동경 유학 보냄으로써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배신으로 상심해 있던 그녀는 김유방의 부탁을 받고 김명순을 도와준 외세다 대학 문과생인 임노월과 애인 관계가 된다. 데뷔할 당시 김명순은 필명으로

---

1) 이 글은 다음 논문 중 김명순의 약력과 서지적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임.

박명진, 「彈實 김명순 희곡 연구」, 『한국희곡의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극과 인간, 2001.

望洋草, 茫洋草, 望洋生, 彈實 등을 사용하였다. 소설가로 데뷔한 그녀는 이후 시 창작에 몰두하게 되고 1925년에 최초의 여류 시집 《生命의 果實》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하였다. 생전에 복잡한 연애 사건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青山) 뇌병원에 수용 중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알려진 바 없다. 김명순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동인의 <김연실전>과 전영택의 <탄실과 그 아들>과 같은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된 바 있다.

1922년 동경유학생이었던 박승희, 김팔봉, 김복진, 이서구, 박승목, 김을한, 이제창 등 7명이 모여 문예서클로 조직한 단체가 ‘토월회’이다. 일종의 독서유희회로 출발한 이 단체는 연학년과 이수창이 가담하고 당시 동경에 머물고 있었던 김명순과 그의 애인 임노월이 객원으로 참가한다. 김팔봉의 제안으로 단체명을 ‘토월회’로 정하고 이들은 김팔봉의 단편소설, 박승희의 단막 희곡, 김명순의 시, 김복진의 자화상 조각, 박승목의 승무 도안 등을 토론 대상으로 삼았다. 여름 방학 귀국 공연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배우를 찾기 위해 서울에 온 박승희는 진명여고를 거쳐 이화학당에 다니다 연극계에 발을 내디딘 이월화라는 여배우를 확보하고, 후에 이월화가 ‘토월회’를 떠나자 당시 조선배우학교를 다니고 있던 복혜숙을 포섭한다. 이월화와 복혜숙은 나중에 김명순과 함께 연극에 출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명순은 1927년 진보적인 극단 ‘종합예술협회’의 공연에 출연하기도 했다. 1927년 8월에 연학년, 이준열 등 7~8명이 조직한 극단인 ‘종합예술협회’는 그 해 11월 4일부터 안드레예프 작 <뺨맞는 그 자식>을 공연한다. 이 공연에서 김복진, 박길용 등이 무대 장치를 맡고, 김명순은 강홍식, 복혜숙, 이월화 등과 함께 출연한다.

김명순의 소설, 시, 감상문 등은 지금까지 소개된 바 있으나 희곡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1923년 『신천지』에 게재된 <어부 자식>과 창작집 《愛人の 선물》에 수록된 <두 愛人> 등 두

편의 희곡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愛人の 선물》은 ‘회동서관(滙東書館)’에서 발간되었으나 그 정확한 출간연도는 알 수 없다. ‘회동서관’은 고유식(高裕植)이 1908년 설립하고 이해조가 번역한 《위싱턴전(華盛頓傳)》을 처녀 출판으로 1937년까지 백 여종의 책을 낸 출판사이다. 그런데 이 창작집에 실린 산문 <鄉愁>의 발표시기가 1925년 12월로 표기되어 있고, 수록된 시 <希望>, <불꽃>, <郭公>이 각각 『현대평론』 1927년 1월호, 3월호, 4월호에 실린 것으로 보아 희곡 <두 愛人>의 창작 시기는 1927년 경으로 추정된다.

1막 4장으로 이루어진 희곡 <두 愛人>은 젊은 부인이 결혼 생활에서 겪어야만 하는 자아 찾기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다분히 자서전적인 내용 전개로 일관하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 결혼과 여성의 삶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이십 내외의 젊은 ‘안해’는 꿈꾸는 듯한 눈동자를 가진 청초한 여자이다. 그녀는 유모의 끈질긴 권유에 밀려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지만, 육체적인 결합을 배제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법률상은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일 뿐인 이들의 가정 생활은 따라서 순탄할 수가 없다. 남편인 ‘주인’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부부생활을 꿈꾸고 있지만 아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이 작품에서 1920년대 인텔리 여성의 내적 고통을 엿볼 수 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질시와 비웃음을 받는 한 여성의 외로운 싸움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희곡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고통과 외침은 개인의 내면 밖으로 확산하지 못한다. 철저하게 자전적이고 사소설적인 접근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당대 여성 계층의 총체적인 비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순 희곡의 장점은, 당시 남성 작가들에 의해 묘사된 시대 풍경이 철저하게 남성적 시각에서 편집된 것임을 반성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남성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당대 신여성의 이미지란 기껏해야 관념적인 대상이거나, 근대화를 관통

해야 하는 남성들의 포획물이거나, 또는 이국적 취향으로 치장된 육체의 기호였다.

愛人의 告白

一〇八

은 나라는 강해를 때문에 당신의 그적은 아차로운 리상을 실현치 못  
하신 것이요.

안해! (머리를 흔들며) 당신 은얼마나 나를 호화롭게 하여 주시었서요 당  
신 은얼마나 마음까지 부유하신 어린이야요 내가 이 번에 죽어 다시 사  
람이 되고 또 너 자로 태어나거든 꼭 당신 가튼 어른에게로 정 팔지 집을  
터입니다. 내 눈이 두 윗 눈이야기를 마세요, 그때에는

남편! (안해를 힐끗개) 그러안으며(당신은) 이때부터 영원히 내 안해요  
사람의 생각하든 모든 것이 다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현실에 이르러 내 려  
볼 때 에는 거진다. 당신 갖치 상처 받게 되는 것이요 역시 당신은 아름다  
운 이요.

안해! (한편) 사 진을 엮해 안치워서 상한 손 길을 내저으며(하이교) 상한  
손 길로 만져 알 수 없는 동경(憧憬)! 사람마다 칭찬 하여 주시든 아름

남편 | 아마우리집에는 본도기름도 바를 사람이 없나보오. 머리는 러지고  
 얼굴은 썩여지고 (고민하듯이 두손길로 얼굴을 가리운다.)  
 박팔장사 | (혼자소리갓치 중분박그로나가며) 얼굴은 썩지고 머리는 러  
 지고 다리팔도다 부러지고 분기름소용도업지 (다시 땀을우해 신  
 밭을들아다본다.)  
 안해 | (동유병자와갓치 팔을내저으며) 유모! 유모! (유모그엽호호  
 가서 그손을잡아준다) 나를 교의우해안치어서 김선생님의 사전압  
 해움겨주어오 마즈막칭이오  
 남편 | (조저하는 유모에게) 교의를이리로 가져오시오 나하고들이안어  
 서 움겨안치시다 (유모는교의하나를 침대압해갓다노흐며안해의 바른  
 편을부축하며 남편은안해의 외인편을부축해야 움겨안치며) 조곰도  
 미안히역이시저마시오 나만은당신을 영버리지안으리다 그러나 당신

愛人의 선동

二〇七

愛人의 心聲

一〇六

죽어버릴수밖에없답니다. 멧해동안이나 뒤를보아주시고 보호하여주신랑신을마즈막뵈옵것마는 내눈은 상하고 내머리는부서졌답니다.

그러나 엇더케치하를하고뵈옵수가엇겘서요

유모—(침대엇으로 일는가서며 안해의귀에) 의사가무엇이라고하섯기에

앗찌는이러케 이려나서 말을을만히하십니와 앗씨께서는 엇대것 전

심전력하여 길러들인 유모의말을안듯고 너므몸을합부르가지서서 늘

은것에게 별참혹한정상을 다뵈이시고도 그저삼가실줄을모르십니와?

남편—(유모에게수짓을하며) 박물장사에게(웬사람이요)

박물장사—박물장사랍니다. 좀되라줍시오. 허로에멧십전버려서근근살어

간답니다.

남편—(지갑에서 돈을쓰내) 박물장사에게주며) 그저가지고가지요

박물장사—(미안한듯서)분을드릴가요. 기름을드릴가요

밋쳐 못보고) 이 데에는 아모도 아게신가? (혼잣소리를 하며 댕들우헤노, 헌조션신을 유심히되려다보고 이리저리휘둘러보다가 침대우에 안해가 쓰러져 고민하는것을보고는) 앓시 앓시 분이 나기를 삼시오 아씨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씨 분이 나기를 삼시오.

안해 | (붕대 처매인 손기기로 손짓을 하며) · 유모! 유모!! (신음하듯 부른다)

박불장사 | (신발을 들어 보며) 앓시! 앓시!... 고신발얹전도하다

(중문으로 유모와 남편) 양복 입고 등장

남편 | (갑히 댕들워르른 나서며) 여보시오 귀정이 당신은 불행을 겪었허 당하시느구려.

안해 | (머리를 들며) 붕대 처매인 두손기들을 내밀며 남편을 어러판지라는 뜻이 | 나리 나는 피를 행하답나다 행복을 차스라다 못하야 참혹히도

愛 人 의 心 事

一〇五

다가, 쉼어 드렸답니다. .... 그아름다운얼굴을맞치였느냐고요? .... 아름  
 답게보지못할사람들이 .... 아름답게 보았섯기에문에 .... 내생명으로감  
 험합니다 (아조시진한듯이 음성을낮초아서) 내가죽더라도 선생님부  
 인께 오해를풀도록이나 하여두셔요 .... 내가 선생님께원망을돌니겟  
 느냐고요? .... 그러면 겐지못하는발로 행방불명이되어버릴가요? ...  
 .... 사람이겐는발거름으로말고 손으로아니압발로괴어서 산에는지 내  
 에든지 들어가버릴가요? ... 염려를마세요 .... 나는그런변명이 뜻기가  
 실합니다 .... 인제안호세요 다 귀치안음니다 .... 아니천만에.

안해! (전화를맞초고 봉대감은팔로 가슴을부둥켜안고) 유모! 유모!!

(볼러보다가 죽은사람갓치 침대 우해 쓸어져버린다)

(중문박게서부러 박을사라는소리가들려온다)

박을장사 (중문안으로 들어서며) 왓씨 분이나 기름삼쇼 .... (침대위를

갖치 선생의 부인압해(어음이점점격렬하여진다 스스로 가다듬으려  
 고는하나 부지중에 더 격렬하여지며) 후백을가리듯이 변명하게된답  
 니다…… 흥분된것이안이랍니다…… 흥분되지안엇슬스룩반드서나는 선  
 생씨나는이런말을할수밖에업지요…… 뵈옵고이야기를할수가업섯스면얼  
 마나 다행하였섯서요 그러나 내눈은멀고내떠리는부서져 절대안정  
 을평량밧은이때에영원히일허버린 마음의침착때문에 필사(必死)의힘  
 을다하야 이러케이야기를한답니다…… 왜 그러케되었느냐고요? 내  
 가선생님씨 잘못되엇섯기때문에 또선생님씨 잘못수배를하여드렸섯기  
 때문에 선생님부인에게 선생님의사진들로닷치엇답니다…… 이러케말하  
 면 선생씨서는곳선생부인의 팔랑을자랑도하지고 심홀러이지마는 선  
 생님의부인은 내집에오자 선생님의사진이결본것을보고 허둥지둥고  
 민밧친듯달너들어서 급히사진을내리다가…… 가만히들어누운내얼굴에

愛人의 불꽃

.....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서는 저와의 멧번업은 교제와 또저의 선생님께서 대한 송배를 언더케해선하시고 부인에게 말씀하여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이십니까?..... 아니 그러실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서는 정녕저를 오해하시었지요..... 아니라니요..... 선생님부인은 선생님과 파세이도 꼭 조흔지다는데..... 그러케까지 저를 오해하도록 내버려두시었지요 내가 선생님을 사모하기 시작할 동기는 단지 애욕(愛慾)뿐이 아닌듯해요 나는 그런것 말고 다른것을 선생님께서 구하얏던것입니다. 선생님과 파갓치 녀자를 다 선생님부인씨의 야욕(野慾)밖에 안가진 줄로 보아서 는 을 치안읍니다. 그것은 참을수 업는 녀자선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 웨그러케..... 선생님은 나를 모욕하여야 할니까?..... 그것이 온갓정성을 다 하야 선생님을 본받으려던 인대가(代價)이라면..... 나는 선생님과 어느 조류의 인격적동정(人格的憧憬)을 가졌섯더라는것을 선생님과

내가 무엇을 바랬든구?

—幕—

四場

舞臺

삼장파 갖흐나 한편사진은 벅키워져서 황금들은 깨여지고유리알이부  
서진채 여긔저긔 마루바닥에 널니여잇고 댕들우에는 조선신이 노혀잇  
다。

안해! (얼굴과허리를 봉대로감고 전화기를 봉대감은손으로 집어들고)  
모시모시 고! 가몽 후다센! 핫백구나나주! 히도방! 부대동임니까...  
리선생님이새요...: 그런데선생님께서는 어제밤에선생님부인이 내  
게오셨던것을모르세요...: 어제밤에요!...: 호호(비우스며)...: 네

愛人의선물

—〇—

愛人의 信箋

100

안해 | (눈을 엄하게 쳐 유모를 보며) 여보 유모 그 좀 답사히 글지를 마시  
오 나리씨는 일흥썬 안해인 나 이외에 참으로 부인 되시는 이가 잇다오  
나야 어드사실 이오.

유모 | (원망스림게 댓을 우에서 구두신는 남편을 바라보고 침대우에  
시름 업시 안젓는 안해를 보며) 저가 틀려은 이는 나 리대일을 도모지 알 수가  
업습니다.

남편 | (신발을 신고) 자, 그러면 쉬는 도록 자중 하시오 그러나 리관주  
씨를 삼가야 합니다 그들이들 부부야말로 새이가 조흔 썬 하 나 리음 두 겁이 갓  
흔 성질을 가진 이들이오 (남편과 유모 중문밖 그로 나간다)

안해 | (두 손길로 얼굴을 가리고 잇다가) 해정 씨가 가시라 거든 쓰오세요  
(대문밖 가서) 네 | 「대답한다」

안해 | (호을로 되여) 세상에 는 유혹이 잇다 못하야 불행의 유혹까지 잇고나

그렇지 다... 되는대로 속히 가리다... 네, 네,

안해 | 아이여가 보세요 나는 엄치엄치 위로 밧고 있섯습니다 그러

남편 | (원강스럽게) 경생 좀더 있스라고 즐나 보구려 그저너는너하는대

로 해라 나는나하는대로 하갓다요 (속으러 지며) 그러나애가 아직 일은 지모

른다.

안해 | (못그리는듯이) 그럴 그박계엇더케해오 각자 자괴로의리 상을롭고

잇스면서야 뵈다른도리가 어디잇슬나와 당신은너무하나 해고하나넛

는 현실이시고.....

남편 | (마지못하야 마루아래로 내려서며) 자 | 귀정이 다 응뵈기까지 완연

히 것계 되시오.

유모 | (부엌에서 나오며) 그런데 나리께서는 알는 아씨를 두고 그러케도

쉬이 가시오.

愛 人 의 신 像

九九

남편 — (삼짇날이며) 그리면 또 해 경 아 작 란 이 로 군 있 던 녀 자 의 사 랑 은 누  
 구의미음……만도못하게 사람을 키 찬케 하는군.

(전령(電鈴)이 운다)

남편 — (전화를 받으려 할 때)

안해 — 내 게 온 것일걸어요.

남편 — (번정거리자도 안코 동정하는 듯이) 리 관 준 씨 에 게 서 ? 당 신 요 새 이 는

그와 숙친(淑親)해정소 (안해부그리는 듯이 미소를 섞우고 우술 때) 남편은

수화기(受話器)를 키에 대고 누구세요? 네? 해정이요? 곳가리다

렘려마시오……그거 무슨 소리요……그럴 리 업소……그저 위로 해 드릴 뿐이

요……그저 세상 사람이라는 가엾은 전지에서……그런야 비한름성을 전인녀

자는 아니오……그런데 당신 내 집은 가져다가 다 잊지 하섯소……

모르다니?……그리면 그러치……틀아래 방에 채워 둔 것이 내 것이 엿소……

을 못 채우면 음두쟁이와 갖치 노여워지는 속인처럼 내게 다야 모런 조 건도  
부치지 마시고요 그때 빈칸에서 건져서 당신의 안해라는 조흔 일흥을 빌  
리어 주신 것 과 갖치요.

남편 | (실는) 두 팔을 내 밀어 안해를 이르켜 침대우해 안치고 (그런 데 당신  
은 왜 닷치셨소.

안해 | 책을 팔어다가 XX회에 귀부하고 도라오는 길에 넘어졌답니다.

남편 | (환심환듯이) 사방을 둘러 보고 (그런 데 당신은) 내 살 남사리를 다 |

엇지 하셨소?

안해 | (눈을 등) 그러케 쓰고 쌍쌍 놀나며 (무엇이 예요? 보내 라 구 귀별하시

지 안으셨서요? 바로 맨 처음 나가 주 모 시든 이른 날 양복가 질러 왔던 하

인이 편지와 인부(人夫)를 데리고 와서 다 | 실어 갖답니다 그러면 당

신이 식히시지 안으셨서요?

愛 人 의 선 물

九七

愛人의 선봉

九六

나란히 앉아서 구경을 하더니 그적꺼져 녀에는 밤 열두시나 지나서 역시  
키적은 녀자와 동대문새로 걸어가두곤 아조션사람이 된 것 같든 데.

안해—(…: 아모소리에도 관심치 않는 듯이 먼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혼자 말갓치) 그가 나를 볼 나던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스랴 그는 추은 난이라

는 자와 가튼 품성(品性)의 남자인지도 모를 것이다! 내 눈은 무엇이 라고

그러케 어두웠든고 역시 나는 남을 원망할 수가 없섯다! 내 말이 어두웠섯기

때문에 눈까지 어두워져서 바로 볼 수가 없든 것이다! (참을 수 업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다가 남편에게) 여보시오 나리와 갓치 관대하신 어른은

사람이란 다—눈도 매이워 잇는 견지(見地)에서 나를 동정할 실수도 잇겠지

요 이 해 매이느 꼴을 볼 행한 꼴을.

남편—(축은히 안해를 내려다 보며 나 존은 성으로) 그러쿠 말구요.

안해—(팔을 내밀며) 그러면 나를 좀 이리켜 주시오 무엇이던지 자귀의 욕심

라도 당신이 내게도 귀오는 날이면 온갖 너자의 후대(厚待)를 다 버리고  
당신의 박대를 받으려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당신의 비움을 받으려 도라  
올 것이요. 다 지내가 나를 알음으로 당신을 존경하여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  
요. 그리고 나를 옹호해 치마시오.

안해 — (머리를 흔들며) 나는 어느 존경할만한 양반을 미혹시켜 주고 최후  
피난처『最後避難處』를 삼으려 할 만치 구구한 생활을 하여 오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 — 그러나 역시 사람이란 리해조건(利害條件)을 무시할 수 없는가 해요  
안해 — (파로운 듯이 두 손을 비비며) 나 갖치 못할 한 자리에 아저서 무엇이랴겠  
서요.

남편 —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며) 퍼밋뎌 밋참김춘영군은 교회와 학교를 나  
와 버렸다는데 월전 어느 극장에서 보니까 리혜경이의 친구인 추은남이와

變 人 의 선 身

九五

愛人의 心 算

九四

안해—(이러설공부를중지하고)아니오 혼자 이러나보지요.

(유모는 슬그먼하부억으로드러간다)

남편—(유모의뒤모양을바라보다가)당신은 그래도 나를의지하여살어갈

마음은압구려 이런때에도 나는당신에게 소용이업습니까.

안해—(편독업는듯이머리를숙이고)이날이때껏 당신을의지하고만 살어

오지안엇습니까 그래서피미안한때가만헛답니다 그런데지금은 나리

썩셔도 자신의행복을 서로차즈신바에야 내가더피로움을세칠수가

엇겠셔요 당신의 영원한행복을빌뿐입니다.

남편—(애원하듯)여보시오 내가세상고생을해온사람이엇섯기때문에 또

어느동경(憧憬)을가진사람이엇섯기때문에 당신을살아는맛으로 불행한

경우에당신에게 맛당한대우를하여드렸던데지나지안습니다 조곰이타

도의식엇시 당신을내안해로억제할여고는 마음머지안엇섯소 엇던때

로 옮길수가 있섯드라 면얼마나 조항슬가 「말을맞치고 주저안졌든 자리  
에서 이러서랴하나 이러서 지지안는다 세사람의 여섯발소리가 갖가와  
을스룩 일충더 이러서랴고하나 쓰러질션이다」

유모—주인(양복입고등장)

주인—(역시 인자한얼굴로) 귀정이 오래 아르섯다구 나를용서하시요  
(주저안져서 이리스라고 무한히 고통하는 안해를보고)

당신은아즉자유로 이러서실수가업구려 엇더케그리케발을맞치섯소。

안해—(역시 이러서라고 고심하며) 나는그동안에 병신이 되었답니다

이말까지 나리새만은 봐여드리고 십지안엇섯는데 이러케봐올는것이 본  
의(本意)가아니올시다(안해의말을 측은히들으며 마루위로 올라와서  
안해를 이르켜주랴고 손을내밀다가 측은히 안해를바래보며) 이르켜  
드릴가요?

愛人의 선물

九三

愛人의 告白

九二

안해! (머리를 흔들리며) 불행을 생각하기에 죽어온 머리는 아모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박제서) 대문에는 소리가 나자 행낭이 멀리 깃부엌골을 하고 중문 안으로 들어온다. 유모와 안해 하던 이야기들 근친다)

어멈! (대들 아래 와서) 아씨 저 나리 마님이 들어오셨는 데요 시방들이 아가 아씨께 비여도 관개 찬케스니 싸 옛주어 보라서요.

안해! (늘나온 표정으로) 어멈과 유모를 보고 망서리다가 (당신댁에) 당신이 도라오시는 데 누가 무어라 겠스니 싸구 (말을 맞치고 얼골을 훑속으린다)

유모! (깃부엌골로) 어멈! 어서 들어오십시요! 말을 하면서 중문 밖으로 나가 어멈의 뒤를 쫓아 간다)

안해! (호을로 되어) 불행한 내 몸을 숨길 내 집이 없구나 이런 내 발을 자유

아씨씨 불민한 일을 하여 드릴 셋 갖으십시오. 나리씨 서하시면 좀 놀나시겠  
서요。

안해 1 (아니 라는 듯이) 퍼리를 흔들며) 그 도자기의 행복을 차차 나가신인

데 내 불행을 령려 하실리가 있습나구…… (다시 머리를 숙이고 안절다) 어

멈내가 X X 회애책을 팔아서 갖다 주든 날이 언제이엇는지。

유모 1 그 날이 아씨씨 발 닿치는 날 아님니까 벌써 한두어 달은 넘었지요。

안해 1 나는 그 날 느저서 X X 회애 갖다 오는 길에 리문안을 지나오는 년」 하는 것 갖드

엇던 너자의 음성 이 내 옆에서 「이 년 남의 사내 잘 차저 단이 는 년」 하는 것 갖드

니 그저 핫 득 해 저 것지 그 후 에는 정 신이 업서 내가 넘어 지고 착각을 이르

켰는지 사실 남 이 나 를 해 하 었 던 것 인 지 도 모 지 아 득 해 요。

유모 1 (고만 맥을 띤 노흐며) 나리씨 들 어 오 시 라 고 괴 별 이 나 할 가 요 아 씨 는

지 금 음 그 친 절 하 시 는 나 리 생 각 이 나 시 지 안 으 서 요。

愛 人 의 선 물

愛 人 의 선 물

九〇

을 남를 해하였다 (다 시 얼굴을 속이고 쓰러진다)

유모 (이상스럽게 말을 듣다가 눈이 휘둥그래지며 마루바닥에 쓰러져서 겨우는 안해를 안아 이르키며) 아씨 왜사위스럽게 병신이 되신다고 하시어 요어머니의 령혼이 하시면 서러하십니까. 그런데 아씨는 다리를 닦치고 도라오신당시는 혼수상태에 빠져서 말을 못하셨고 그다음에는 넘어지셨다고 하시더니 시방말씀을 드르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갑작이 노여움과 원망을 품고 무서운 얼굴을 지으며) 었던년이 그랬습니까. 었던년이 그랬습니까. 아씨는 그런말조차 업스셨습니까 (팔을 내뻗으며) 이어머니의 팔로 그런년의게 복수를 하여드릴 남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안해 (피로온듯이 입살을 깨물고 머리를 흔들면)

유모 (중금한듯이) 었재이 어머에게 가르켜주시지 안으십니까. 어머이

갓다는듯이 얼굴을 돌리다가 강입하여 래연하여진다. 안해호소하는듯  
 이유모를 바라보며(어름나는인제 병신이구려)한마디한식하고는 얼굴  
 을 두손갈에 못고 혼자말갓치(일허버린행복을 회복하려다 못하여 병신  
 까지되었다)유모얼굴을늘이고 늦겨운다(내가 김선생님을 무소부재(無  
 所不在)하신 교리(敎理)를가진 하나님의회당에서 처음되엇을때 그  
 는손소피운화로불을가졌다가 령혼까지식어버리랴는 나를누여주시엇섯  
 다 그이후로 나는내세살살이가 참을수업시치운것임을알게되였다. 처  
 음검마즈막으로순간(瞬間)만더워본 세계의 영원한냉각(冷却)이든가?  
 차라리 이피로운내머리가 부서지든편이나슬센하였다. 찬인정?몸슬  
 세상!덜꽃보다더적은내소원을일우워줄수가업서서 조고만나하나를  
 영々버리는구나!역시이세상도 조고마하던가? (하날을우러러보며)  
 분별업는너인!운도매이워서 복수를한다고야 내게향한암망이아닌것

愛人의

八九

愛人의 手

八八

얼니면 안해는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고 침대우해거리안졌고 유모는 방  
금부엌에서 진일을하다나온듯이 땀을우해서서 행주치마에 손을씻으며  
유모—어디까지 저 보는데 한번거리보세요 절지안코는 못거리시켰나봄  
시다 어서아씨

안해—(얼굴을양손으로 가리운채 머리를흔들며) 두어달동안이나 누어있어서  
그런지(한편다리를가리키며) 이다리에 맥이플너서 힘을줄수가업는데。

유모—(답답한듯이) 그래도 저 보는데 한번거리보세요 하도오래누어  
계셨스닛가 맥도플나섯겟지요。

안해—(마지못하는듯이 얼굴에 손을떼며 약간귀치안은미소를 띄우고 침대  
우에서 이어나가려고는하나 잘어려서지지는듯이 머뭇거리다가 두  
번세번주저안즈며 간신히이어나서 잇는힘을다하야 바로거리보려하나  
절극절극 두어서나발자욱것다가 고만팔십주저안는다 유모는참아못보

三場

時節

이장으로부터 두달후

舞臺

역시 일장과 가튼 대청 뒤마루 위 이 전락자가 노혔든 자리에는 친대가 노혔고  
 침대 머리맡엽호로 적은 락자우해 청자색(靑磁色) 솟병에는 흰장미  
 색벽에는 흐너질 듯이 솟치어 잇고 락상 전화가 노혀 잇스며 북향한 연두  
 무복히 황금체속에 들어 침대를 구비본다 미다지 박으로 뵈이는 정원화단  
 에는 우미인 초가 빨갓게 피어 잇스며 장미화가 후월담을 가리어 하날  
 위까지 년지벗을 형세로 피어 잇고 군대 군대 파 초님이 무성하야 잇다 막이

愛人의 선물

八七

愛人의 心 算

八六

어멈—(사편을 두리번두리번 둘러보다가 허리춤에서 편지를 꺼내 안해를 준다.) 여긔 있습니다.

안해—(편지를 보고 종이를 뒤집어 보며) 엇재 X X 회종의 르 편지를 쓰셨스  
써? (의심스런 듯이 편지를 드려다 보며) 그러하 유모 자기 양복을  
다—보내라고 하였구려.

유모—(행낭어멈을 아래위로 훑어 보고) 분명히 나리 글씨니 아 (안해를 유심  
히 보며 웃는다)

안해—(그런 것 같해도) 말을 사치고 어멈을 본다.

(이때 세 사람은 서로 의심스런 얼굴을 드러다 본다.)

—천천히幕—

유모—(매우유심스럽게) 어머님의 아래위를 훑어보고(그래우리덕나리씨 서 그덕에게심드카

(네 저도만일보통부부관계일것것호면……그럴지도모르지요……그런 때마다응금하고미안하기도 하답니다……무엇이 그렇라고 사실이 아닌 안해의도리겠서오……ஏ재서XX회는 내가정일을조사할권리나잇는것것구려……호호……아모래도관계찬습니다……그리치오(안해박그로나오며유모를보고)

안해—아이 진전화도다맞았다 엇더케수다스려운지 아이(낯선어머님의 모양을보고) 그런데 저사람이 어디서왔소?

유모—(의심스려운듯이) 태평릉 리해경씨덕에서 오셨다나종로류주소사덕에서 오셨다나하는데 이덕나리가 그덕에서오드가신다고 양복을보내라구 편지를하엿다나오(비웃는듯이면히선어머님을본다)

愛人의선물



기우리며) 유모 대단이 좋니 운모 양이 구려 눈을 피람다 비빌 때는 하지만 유모는 대문을 열려 박 그로 나가야겠소(귀를기우려드르며) 박계누가 온모 양이야 애문이너 무멀기때문에 행낭사람을 내보낸것이 꼭 불편한데.

유모 (대청아래로 내리서며) 관찰습니다 대문 열러나기싫음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중문밖그로 나가서 사려진다 때마침 큰방으로 전령소리가다시 들린다)

안해 (황망이 큰방으로 들어가서) : : : : : 네어 드세요 : : : : : 네? X X 회누

구시라구 : : : : : 네 리해경씨세요 : : : : : 네염려마세요 : : : : : 마춤 금명간 전지안

은논이 내손으로 드려올라이니까 : : : : : 그것치오 멧십명의화재민(火災民)

쌈 : : : : : 멧칠동안 지나게할수가잇겠서요 : : : : : 돈되는때로 오를져녀이나 내

일야출애차자가되옵지요 : : : : : 네 네 무어시혜요 오 우리주인말씀이

세요 : : : : : 그것은 왜 부르세요 : : : : : 아나 : : : : : 우리사이는 남녀의 관계는 아

愛 人 의 선 물

八三

과학대파(相對派)의 것과 진화파(進化派)의 것들 과학적(科學的) 서류  
 와 비교해야 하겠는데……? 나는 무엇이 라고 하려케 영구히 사람의 본능  
 (本能)을 진이고는 직히 기도어려울해 부락이 이승의 금욕주의(禁慾主義)  
 책들을 합부로 사디렸는가? 참이것은 주일마다 우매(愚昧)한 신자  
 (信者)들을 더욱 극세게 한다고 강단에서서 공상적신화(空想的神話)를 짓  
 고잇는 장로(長老)나 목사들에게 필요할 것이 아닌가? 『루터』가 살아서  
 나를 알면 좀 우를가? 그러나 나는 김춘영씨의 일을 본밧던 것이 아닌가  
 그랬치만은(무엇을 생각하다) 유모가 책을 음겨 놓라가 말고 본드 혼자  
 귀운을 비벼서 풀니운 것을 깨우는 모양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려 마즌듯이  
 을 치을지 그는 그 자신의 애욕(愛慾)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만지  
 도 않는 서류를 사디린 것을 나는 모르고 X X 책사에 탐지하여 그가 사는  
 책은 다 사디린 것이 아닌 것인가? (대문호들 나는 소리를 듯느라고 귀를



愛人의 선물

八〇

리를 들추려한것은안ियो 그러나그들조차 나를바로알지못하는것같은  
 예도 허구만헛소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외에 무엇을구하려던것이  
 련(試練) 못된 동등한의식이었스나마 사실이엇소 (이것치 이야기하는동  
 안에는 그들은 책을내리우고 음기든일을 이저버리고 이야기들을한다)  
 유모! 아이구 가이업슨자근하씨 련사갓흐신마님의사랑을일흐시고 무  
 수구령에 해매이섯습니까? 어멸의귀에는 들을사록 색가저리기는  
 하나 무슨말습언지요 앓지는그저쓸쓸하시든것갓기만합니다.  
 안해! 그말을 다 잊지해오 사상의 환경으로 실제(實際)의 환경으로  
 목적업는길을가는무엇갓치 지독히 내생활은쓸쓸하엿소 그래서더어느  
 편으로나 목적을가지고싶흔본능의충동인지 근새고난처한요구가 잇기  
 시작할것이요 그래서늘사상방면 신앙방면으로 갓흔사람으로의 승배  
 자를구하엿섯소 (픽퍼로운듯이 가삼을부등켜잡을때 큰방으로부러전

추어 버리실야는 듯이 남의 내정을 부르심니셔? 그 안악네는 아씨보다 야무  
 지게 생겼던걸이오 그러니까 그 안악네도 아씨께서 김춘영씨가 가리키  
 러 단이신다는 학교로 차저 단이신다는 것이 수상해서 일부러 었던 어  
 른 인가 보러 왔던 것안입니까 그런 망신을 다 당하시고 참싸하십니다.  
 안해! 아아어 말이 나를 제법 타일느는 구려 그러나 지금 내 말이 유모를  
 빙정 거리는 것은 안이오 하지만 나는 내가 아주여 지업시 구차할 때 부러 김  
 선생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였다가 그 가여지엄시 냉정하여진 때 나는 고  
 만 그가 언제 한번은 몹시 칭찬하여 혜성과 같았 그의 학설(學說)을 어느  
 신문에 발표한 리 선생님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오 처음에는 단지 그의  
 인격으로 사상으로 무었을 었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주위에 환경이나 만을  
 감정적으로 이상한 곳에 써 러 트리었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무슨 판  
 능적(官能的) 쾌락을 었으려고 하든 것도 안이오 그들의 아처러운 보금자

愛人의 신물

七九

愛人의 신봉

七八

매정도하지었서……아마지금생각하니까 그부인이계신일이었는지……  
 모르지(역시책을내려서 유모에게주며)참넘우늘나와서 못지도안었지마  
 는 김춘영씨부인이라고하면서 여귀왔더라고하던녀자는 엇더케생겼습  
 디싸유모아주편잘나습디싸?아마 김선생씨서는 내가일생을 이리케  
 뉴볼가온대 지나감것도모르실것이오(무엇을함참생각 하다가)그것이  
 또당연할일이지……그러니내—마유이키—일흔배모양으르 바람결을싸  
 러 청교도(淸教徒)인 김춘영씨에게서 사회주의자인 리판슈에게로  
 옮겨가는것이안이오(책을내려다말고 먼산을보며)것잡을수업는 뷔  
 인마음!

유모—그러치만 아씨씨서는 단벌웃을팔아서 미천을하여가지시고헌책  
 장사를하여근근생활하실때도 김선생님 리선생님생각하시었습니싸?…  
 아씨씨서는 이미 남의귀한댄아지가 되신바에야 왜 남의짐보금자리들을

들살나든겨울인가 그해에 삼마는 도라가고 저 (음성을 낮추아서) 아  
 버지는 실상 어찌알다 십히 계부가 안이였섯소? 그럼 데삼마도라가시  
 자 한말이 못되어 저 서모가 승차를 하겠나 그러더니 되립다 별々 피상  
 스러운 연극이 이라나 기시작을 하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마를 날이 업겠지  
 어머니도라가실런시에는 아버지도 너 어머니가 도라가섯다고 내가 네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하겠나 하면서 어머니가 내 주머니에 너 허주시든  
 금북치와 보석을 죄다 쓰내가더니 빨간 거죽말이겠지? 그래서 나는 주  
 머니에 돈 한푼 던치 안코 집을 나와서 저 (음성을 낮추아서) 한 책장사를  
 해서 먹어 가면서 틈잇는 대로 도서관에 도단이고 어학도 더 배우고 하였지  
 그…… 매나는 저 회당에서 김춘영 씨를 뵈왔구나 그때 그 어력이 단정  
 하시고 청신하여 뵈시던 일 시방은 무엇때 문인지 안체 모른체 하시지만  
 그때는 무엇인지 천질도 하시었지…… 그러나 었던 때는 눈물이 나도록

愛人의 선물

七七

러 드린 아씨가 그저 귀여울뿐이지요.

안해—(비로소락종하는얼굴로) 그런데 우리 다른이야기 좀해요 응 유

모! 이뻐으나 넓은세상 쓸쓸한정경에 씩우리 두사람만이 서로 밋

고 의지하여야 하지안우 응유모 유모도 아들까지 버리고 나를싸라온

이상에 아모조록 내 뒤를잡아주어야 하지안우(유모의 얼굴을 가

웃이 되려다본다)

유모—그러코말구요 제가 재작년 여름에 길가온대서 자근아씨를 뵈옵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때 언더케 신색이 못되셨는지 아씨께서는 설마 제

가 길너 드린 어른까지는 안하셨답니다 그러나 아씨의 얼굴을 한참 되려

다보니 눈매입매가 그전 모습이야 아니겠습니까? 언더케 망극하던지요

(역시 책을 뺐으며)

안해—아이(좀북그리는 태도로) 저—어법이 시골가 있는 동안에 내가 열여

다가) 그렇지만 나는 남편을 차자 해매는 것은 안이지.....

유모—(심란한듯이 책을 꺼내려는) 마루앞으로 내려놓라가) 아씨 자근아

씨 저보고 그러케 대들지를 마세요 저야 단지 자근아 씨께서 더 잘 되시기

만 바라고 모든 일을 의논하여 드렸는 것이지요.

안해—(종삭으러저서) 그야 그렇치! 나도 유모가 내 속이야기 한마디도

잘 못 해주지 안으닛가 고만 일이 나서 하는 말이 지 내가 어드갓치 살남자를

찾는 것인가?

유모—온천만에 언제 어멈이 아씨 말을 잘 못 어드리지 안엇다 고 하심니싸.

안해—안이 잘 못 해주지 안는다는 것이 안이라 조케 생각하여 주지 안는다는

말이야.

유모—(비로소 화평한나을지으며) 어린이를 귀여워하는 판으로 안해를

치어다보며) 저야 아씨께서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강보에서부터 벗어갈

愛人의 선물

七五

愛人의 선물

七四

가 조호시니까 선염려써지하시는것같치박게 뵈이지안는답니다. 그러  
나저야무엇을압니까. 밥이나먹으면일이나할줄알고 시집가면 한남편  
성길줄알고 고용가면한주인성길줄알뿐이지요.

안해! 아이어멈. 그런말을좀듣쳐주어요. 나까지. 그러케되여버리는것같  
해요. 그런과상망축한 현실(現實)에나안어지는것이 내게될쎬두안한일  
이안인가? 어서아므소리말고. 이책에문지를할어서. 마루숫해내노하요  
누가이리로. 시집오겠다고맨처음부러하엿더라말인가? 모두유모의청승  
마존방장때문에이리로와가지고. 방마다싸음결이나하고. 별별연극이다이  
러나는것안인가? 그러기에내가처음부러. 무엇이라고하더라말인가이데.  
나리째서. 하도간청을하시니까. 이리로오기는오더라도. 어디. 남녀(男女)  
의관계로. 온다고하엿던것인가? 반드시. 동성간(同性間) 친구와갓치  
지나자는. 조건을뚫쳐가지고. 온것이지(무엇을락심한듯이. 머리를숙이

고 한잠 못 잤구려 (가엾은 우슬을 입가에 씌고) 아이가 엽서라 어서  
하로 밤비내가 행복스러워져야 유모도 편한 잠을 자 볼 것 아니요.

유모 (눈이 번쩍 뜨는 듯이) 아씨께서 행복스러우시면 게서 더엿더케  
행복스러우시겠서요 부자면 의씨님으르 데여나서서 어머니께서 세  
샅셔나신후 얼마땡안 교생은 하시엿다 할지라도 이러케 호화로운데  
맛며 누리로 남부러울 것이 업스시니 좀 조호세요.

안해 (원망스러운 듯이) 유모도 역시 내편은 아이구려 나는 결국 의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 어데다가 속말한마디 할 곳이 업지 그러니 싸  
지금 싸지 유모도 내 심복이 아니엿더란 말인가? 그러면 잇새것네가  
유모에게 이러니 저러니 사정이야 기해은 것이 거진다 유모에 바위에  
거슬니 엿더란 말인가?

유모 (죄송스러운 듯이 얼굴을 숙이며) 제 생각에는 아씨께서 너무 팔자

愛人의 선물

七三

愛 人 의 선 報

七二

불행을 차자 드리는 것 같구려! 아하하 나님의 성 단압해서 붉은 옷을 입  
고 어린 머리를 숙여 소원을 일워지라든 신앙(信仰) 생활에서 벗어나 내  
마음속 일족이 아모도 이르지 못하게 한 자리에 어느 결정을 단흔 인격을 안  
치고 내 희망 전부를 갈어? 아아 (송찬호 흠을 간신히 하며 썰니는 손길을 가  
살우해 노코) 유모! 이 송찬호를 좀 보아요 내 맥은 무엇이 라고 이 러케 뛰  
는 지내 손길이 썰니는 것을 좀 보아요 유모라 니까!

유모—(졸면서 내려 노흔 채에 문지를 털어 마루숫해 눈타가 삼작 놀나 손  
길에 들었는 채을 고만 무를 짝에 썰러 트리며) 아씨 왜 그리 심니까。  
안해—(피로 운 듯이 우스며) 유모 풀니 운 거구려。

유모—(미안한 우습을 우스며) 이 러케 하으니 싸늘 풀니 읍 답니다。 그런 데  
아씨는 잊지 녀에 한 잔도 안 음으 셴스니 좀 풀니 우시 겠셔요。

안해—오—참 유모는 잊지 녀에 나리와 나와 말 다름 하는 것을 말니 노라

저서 책을이리저리 안해가 가리키는대로 가려 노코 안해는 아래위로  
욕색웃을하드름하게익은채로 빨간교의우혜을나서서 책을내리어유도  
를준다。

안해—(책을차래차래내리다말고) 낭손으로 푸델미를페우며(유모내가이  
러케 세월을 보내는동안에는) 내어머니께서 나를고요히 쉬여주시  
든자장가를 이저버리게되는구려 내가있저자구 내어머니의 방안을  
아장아장거리단이며 금방울소리로가득채우든시대에서 멀리멀리지나왔  
든가! (소리를놓히여) 유모! 내가육신의저조만은 직혀왔다할지라도  
이남자의환상(幻想)에서 저남자의 환상으로써여단이며 온갖행동을  
죄우하는것이 단지일허버린 내어머니의 그화평한 행복스런언어들  
을 찾고저하는데지나지안는것이라오 하것마는 서트름 화가(畫家)  
가 사자를그린다고 일히도못그리는것갓치 나는행복을찾노라는것이

愛人의선물

愛人의 선들

七〇

(전니 방으로 부러안해의 「이것이다 누구의 죄인 줄을 아나? 유모가 공연히 너 자는 혼인을 해야 하는 이 파는 이 하고 사뭇나를 썩여 내인 랫이 안인가? 저이는 나를 아모구 속임시 섬원히 살린다는 약속을 어디 직히는인가 내가 이려 케고 난을 당하는 것이 그래 유모의 눈에는 보기 조흔가? 참 우습다! 저이가 그래 무조건으로 내 생 존을 영원히 보장한다는 인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너온다)

—(幕)—

二 場

舞 臺

일강과 갖호나 탁자우해는 북송아 꽃이 썩치엇고 책상에 가득가득 싸히엿는 책들이 세 무덤이로 난호여 마루우해 싸엿는 데 유모는 마루바닥에 안

늘부러당신은 나와 약속을 깨리나와 아모것도 안되는남입니다  
저리가서요!

(남편) 안해의 아릿나드리를 점점애안는다 안해 자귀에게점점갓가히  
하는 남편의언개를러 불니치려하며(당신은리성(理性)을아조일허버  
린사람입니다 나는리성을일허버린사람을 잘치치할줄입니다 유모! 유  
모! 이리종와요 (유모 부억으로부터 황황히등장한다)

유모—웨들 쏘그리심니까 사랑쌍이시지요 아씨너무—서방님썩쌀수히  
구시면 어멍의외까지 키집니다 (유모는 안해를건너방으로 모서간다)

남편—(절망한듯이)내가누이 어두운사람이다 세상에일홈만부부생활을  
하겠다고 손가락한아 안닷치겟다는조건을벗쳐가지고 허위의결혼을하  
는 남자가 나박게쏘어드릿슬나구 세상에인심까지일코... 아하이날  
이언제나 망해버릴것인가(매침마루한복판에서서 먼하늘을치어다본다)

愛 人 의 선 물

六九

愛人의 愛人

六八

입니다.

주인—(안해의) 압해 무릎을 꿇고 안해의 하얀 치마자락을 보좌하며  
이러케 내가 당신압해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요 제발 그 공상루각에서  
좀 내려와서 이러케 갖치 살게 된 이상 부부 화평한가정을 일우워봅시다.

안해—(무성고 실은 듯이 손으로 치마자락을 썬치며) 노서요 이것이 무슨  
뜻이야요 이것이 화평한가정주의(家庭主義)라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에—(곳이 약속된 조건을 무시하고 왜 축축히 남의 치마자락을 잡으서요)

주인—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요 (말을 맞  
으며 두 손으로 안해의 치마자락을 잡아서 안해를 자괴품에 쓰러안으려 한  
다)

안해—(냉정히 정렬하는 표정으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지마는 순결이  
라는 요소(要素)는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리가서요! 저리가서요!! 오

인 남편일지라도 내가 잇는 이상 당신이 홀로 나아가 단이면서 설마다 큰남자와 밀회(密會)를 하였스리라 고는 생각이 안되오만은 당신이 전일부러 존경하는 주인이 나는 김춘영군이 회부리주의 자일지라도 당신이 하필 그 참혹한 이중생활(二重生活)을 본받을 필요가 어대잇단말이오 김군이야말로 참정리한남자이기 때문에 가는곳마다 주위의 인심을 일치안키워하여서 더욱이 뜻사람의 동정(憧憬)의 초점(焦點)이 되는 너 자의 마음을 질겁도록 조종하는것은 식은죽먹긴것이오 그런사람이 당신이 내재하듯이 그 처자(妻子)에게 냉혹(冷酷)히 하리라 고는 생각이 되지를안소 그러니 귀정(貴正)이도 그이를 본받으려거든 내게도 너모 섬々치안로록하여보시오.

안해(安海) — 참으로 괴로운것이 머리를북숙이고(髮拔) 그런 잡소리를마서오 내머리가러질것같습니다. 나는 단지더 잘살기위하여 나의리상을차출썩

愛人의선물

六七

愛 人 의 선 言

六六

주인—여보 기정이 너로도 냉정하구려 무슨일로 노였길래 사람이 세 번 네 번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단 말이오.

안해—(피로운듯이 뒤를 돌아다 보며) 왜 그러세요

주인—(피로운우슬을 씻어내고) 흥 오늘은 당신의 제일 첫째인(愛人)인

김춘영군을 맛났구려 그러니까 오를만은 나도 당신의 금욕주의(禁

慾主義) 련애신성(戀愛神聖)을 존경하시도 할리이요 하지만 과도

한 침부주의만은 더참지를 못하겠소

안해—(대단한 노기(怒氣)를 얼굴에 띄이고) 무엇이 라구요 나는 책사에

갓다 옵니다!

주인—여보 기정이 당신은 포군(暴君)가구려(말을 맞치고 다 탄담배를

타자위 캐터리에 던지는채하며 대들엽해 내리섯는침모에게 눈짓을

한다. 침모는부억으로 들어가 버린다. 주인 다시 돌아서며(비루일홍색

고 나가버린다)

안해 | 차부가 돈맛아가는것을 댓을우해서서 바라보다가 말업시구쓰  
을벗고 건너방문압홀 바라보며)침모 저기잇는 슬납싸 좀집어다주어

요

침모 | 아이참 쓰이저버렸습니다 그러 외출하신재는 마루압헤 노하두  
라고 하시든것을 저는정신이 그러케압답니다

(미안한말을하면서 건너방압헤 노혀잇는 쌀간슬림싸를집어다가 안  
해가을나스려고하는 마루숫헤노하준다)

주인 | 차부가 갖다노흔 책을이책저책,펼쳐보다가)여보 기정이 당신  
은 류류단(淸敎徒)이라도 되려는셈이오 여기책들은 죄다 해부라

이외주의(主義)의서류(書類)들이안이오.

(안해 말업시 건너방압호로가서 방압을 열려고할때)

愛人의선물

六五

愛人의 心 亂

六四

주인 — (한심스러운 얼굴로) 담배를 피우며 말엽시학자근처를 거닐고 있다.)

(대문 열리는 소리 가나자) 처녀 다음게 청초한복장을 한 아해가 조용히 들어온다.)

주인 — (반갑고) 놀나운 얼굴로) 아 — 귀정이 어디를 갔다 오시오

아해 — (주인의 말에는 대답 없이) 대유박을 내어다 보고) 차부 그책을

이리 드려다 주 (명령한 후) 천사 이 댓들압으로 걸어간다.)

차부 — (책을 한 아름 들고 와서) 어디 노호랍니다요

주인 — (관후한) 얼굴로) 응 책인가 이마루꽃해 갔다 노하주게

차부 — (책을 마루꽃해 노코) 삼을 씻츠며, 사치한 집장식을 돌아다본다.)

주인 — 어디서 오는 길인가.

차부 — 종로에서 옵니다.

(주인은) 포켓트에서 돈을 꺼내 차부를 주니 차부 절을 하며 밧아가자

침모는 털채를 들고 책장파락자와 미다지를 부즈런히 들고 단이고 주  
인은 조서옷을 입고 락자가를 슬림싸도신지안은 채미심한일이 잇는듯거  
닐고있다.

주인—그래아씨말씀이 이제부리는 안잘자기도두지안는다구

침모—네 그런비용으로 더공부하실채을사시던지사회사업을하신다구하

시면서 저더러도 맞딩한곳을구해서 나가라고하시어요.

주인—그러면 살릴사리를 손소할터이라나.

침모—그야 유모가 아즉한지안으셨스닛씨 그를킷으시는모양이시지요

주인—그러타하더라도 내의복은엿지할모양인구 자귀는 녀학생기분을

버리지도안코 공부할생각만을 가지고잇스면 (죽세주머니에서담배를

쇼내부치은다.)

침모—아마 나리씨는 양복만입으시도록 하실모양이신가보아요.

愛人의선물

六三

愛人의 선 문

六一

一 場

時節 봄날 오후

舞臺

막이 열니면 화려한중류이상가정 대청의 중앙등그림자우에는 살구  
 꽃병이 노혀잇스며 좌우엿해벽을의지하여 책을가득가득담은 책상들이  
 즐락히노혀잇고 동편으로는 큰방으로가는미다지 덧문이뵈이코 서편  
 으로는 건너방에들어가는 미다지와 등그런들창이잇다 그외에설아래  
 로 중문과 부엌문도잇다

대청넘어로보히는 후원에는 살구꽃과 개나리가난만히피어잇스며  
 멀죽이태를잡은벽돌담밧헤는드물계선 수양(垂楊)이푸른실을느릭느릭흔  
 들고 봄새의지저귀는소태조차노곤하다

# 두 愛 人 (一幕四場)

人物

주인 이십륙세의 후덕스러운 청년

안해 이십내외의 씩씩은 듯한 노동자를 가진 청초한 여자

유모 오십내외의 인자한 여자

참모 평범한 삼십내외의 서을 여자

그외의 차부 반물장사 행낭어멈수인

愛 入 의 전 물

六一



말 리 머

1  
 강변 버드나무에  
 내적은 키를대여보며  
 2  
 아아 아름답든 그 노래 외  
 지금나는 成長하고  
 江邊垂楊은 老衰하였다  
 그리나 내 노래는 悲歌는  
 이노날에 幸福되외보리



薄 明 金 實 彈



